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Korea Chicken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 463-05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수의과학회관 402호)

☎ (0342)707-5722~4 FAX (0342)707-5725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263-3598

4

1999

제5권 제4호 통권46호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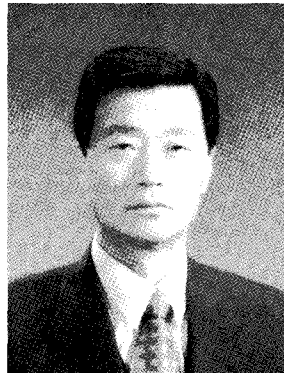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 10kg을 향해 분주히 노력해 온 계육산업이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감소와 생산비 상승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닭고기 수출국의 생산비 인하와 적극적인 수출정책에 따라 수출가격이 대폭 낮아져 국내 생산량의 감소에 따라 출하가격이 상승한 시점에서 지난 1998년 10월부터 매월 2천여톤씩 수입이 되고 있어 환율상승으로 닭고기 수입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소비량의 약 4%에 가까운 양이 수입되어 경종을 울리더니 금년에도 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되어 당장 삼복 육계정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간 계육산업은 계열화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완료하여 어느 정도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기반을 넓혀간다는 확고부동한 목표하에 육계인이나 계육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노력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열화사업은 수치상으로 본다면 목표에 근접하였을런지는 몰라도 농가소득 보장, 부가가치 창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때 불안감마저 감돌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종계업의 기반붕괴로 병아리 생산량이 수요



장 대 석

(사)대한양계협회 회장  
본회 고문

에 미치지 못하여 입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생산비가 급상승하는가 하면 무리한 병아리 생산으로 생산성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감안해 볼 때 수입 닭고기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서 계육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육계업의 기반은 급속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육계업의 장점은 대량사육, 단기사육, 사료효율의 극대화에 기인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고급 단백질 공급하는 것인데 우리의 계육산업구조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생산비가 낮아지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험성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건전한 계육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향상, 계육가공업체의 부가가치 창출이 실현되도록 목표를 재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채비율이 높아 경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가지 목표를 세워서 대화를 지속해 나간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싶습니다. 위축된 소비, 낮아진 국제경쟁력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서로 반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